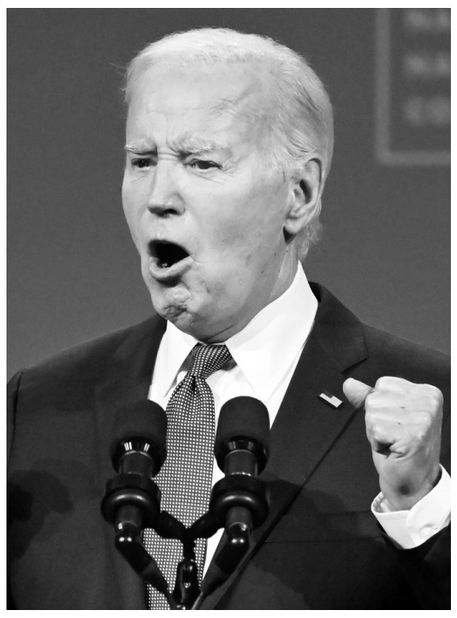
美 국민 5명 중 4명 "국가, 통제불능 우려된다"


바이든

트럼프

대선 전후 혼돈 걱정…"케네디 때처럼 격동의 시기 떠올리게 해"

'트럼프 암살 시도' 직후 지지율 트럼프 43%·바이든 41% '팽팽'

미국인 5명 중 4명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이후 국가가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드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암살 시도에도 여론조사상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 구도는 여전히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로이터와 입소스가 15~16일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등록 유권자 가운데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은 43%로,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41%보다 2%포인트 앞섰다.

지지율 격차는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3%포인트) 내에 있었다.

로이터는 트럼프의 암살 시도가 유권자 정서에 큰 변화를 촉발하지는 않았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선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정치적 폭력에 대한 미국 국민의 걱정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유권자 992명을 포함한 전국의 성인 유권자 12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전체 유권자의 80%는 "국가가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통제 불능을 우려하는 비율은 민주당, 공화당 당원 그룹에서 비슷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13일 있었던 '트럼프 암살 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에서 유세 중 총격을 당했으나, 총알이 귀를 스쳐 지나가면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로이터는 이 사건은 1960년대 민주당 소속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암살된 후 1968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로버트 F. 케네디가 살해된 것과 같은 격동의 정치적 시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전했다.

유권자의 84%는 대선 이후 극단주의자들이 폭력 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답했다. 지난 5월 조사에서는 74%가 이같은 우려를 표했다.

미국에서 정치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증 절차를 저지하려고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1·6 의회 폭동' 이후 심해졌다.

폭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폭력을 용납하겠다는 비율은 낮았다.

'자신이 속한 정당의 누군가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 6월 조사에서의 응답률 12%보다 낮아진 것이다.

'정치적 신념으로 인한 공동체에 대한 폭력 행위가 우려된다'는 응답도 67%에 달해 작년 6월 조사 당시 응답률인 60%에서 상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을 입고도 살아남자 보수적 기독교계 일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의 가호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공화당원의 65%도 "트럼프의 생존은 신의 섭리 또는 신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견에 동조하는 민주당원은 11%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SINCE 1952

지구촌 통제불능의 현장들

공습 이스라엘, 가자 '인도주의 구역' 또 공격

팔 피란민 등 최소 60명 사망
"유엔학교 하마스 대원 때문"
알마와시 폭격 입장은 아직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피란민이 몰려있는 '인도주의 구역'을 포함한 가자지구 곳곳을 또 공습해 최소 6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가자지구 남부 중심도시인 칸유니스 서쪽 해안에 위치한 알마와시 지역의 한 주유소 인근에 폭탄이 떨어져 17명이 숨졌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알마와시는 이스라엘군이 인도주의 구역으로 지정하고 팔레스타인 피란민들에게 이곳으로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곳이다.

이와 별개로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촌에서도 유엔 학교인 알아우다 학교가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병원 의료진은 팔레스타인 피란민들이 머물고 있던 이 학교에서 최소 16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통제를 받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 밖에도 곳곳이 공습당해 최소 6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군(IDF)은 이날 가자지구에서 40개 군사목표물을 공습했다고 확인했고, 알아우다 학교의 경우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교내에 있었기에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스라엘군은 인도주의 구역인 알마와시를 폭격한 것과 관련해선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알마와시 지역은 지난 13일에도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공습을 받았고, 당시 가자 보건당국은 최소 90명이 숨지는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7일 약 1200명의 목숨을 앗아간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지휘한 알카삼 여단 사령관 무함마드 데이프와 칸유니스 여단 사령관 라파 살라메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살라메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데이프도 함께 목숨을 잃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

테러 파키스탄 무장 반군, 군부대 폭탄 테러

민간인·군인·반군 등 28명 사망
파키스탄탈레반 반군 배후 자처
보안군 "무장 괴한 10명 사살"

파키스탄에서 무장 반군의 공격으로 민간인과 군인, 반군 등 총 28명이 사망했다.

17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일간 돈(Dawn)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아프가니스탄 국경 인근인 북부 카이버 파크툰크와주 반누에서 10명의 무장 괴한이 파키스탄 군사 시설을 공격했다.

특히 폭발물을 실은 차량을 충돌시키는 폭탄 공격으로 군인 7명과 예비군 1명이 사망했다.

이후 파키스탄 보안군은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 군이 반격을 가해 무장 괴한 10명을 모두 사살했다며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큰 재앙을 막고 무고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번 공격에 대해 파키스탄탈레반(TTP) 지휘관 하피즈 굴 바하두르를 따르는 반군들은 자신들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에는 카이버 파크툰크와주 데라 이스마일 칸의 한 병원에서 무장 괴한이 총격을 가해 여성 의료진 2명과 어린이 2명을 포함해 민간인 5명이 사망했다. 이 공격 직후 인근에 주둔하던 파키스탄군이 출동해 대응했고, 전투 중 파키스탄군 2명과 무장 괴한 3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하는 이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현지 언론은 이번 공격 역시 파키스탄탈레반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파키스탄탈레반은 아프간을 장악한 '아프간탈레반'과는 별개 조직이다. 아프간탈레반은 파키스탄탈레반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파키스탄탈레반은 아프간에 은신처를 마련하는 등 아프간탈레반과 물밑에서는 오랫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

독살 방콕 최고급 호텔서 외국인 6명 숨진 채 발견

베트남계 미국인 등 37~56세
경찰 "하얀 가루 묻은 컵 발견
일행 중 사라진 1명 추적 중"

태국 방콕 시내 최고급 호텔 객실에서 외국인 6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사인과 살해 동기 등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17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전날 오후 4시 30분께 방콕 시내 라차프라송 지역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시신 6구가 발견됐다.

사망자는 37~56세 남성 3명, 여성 3명으로, 베트남계 미국인 2명과 베트남 국적 4명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날까지 예약돼 있었으나 체크아웃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호텔 직원이 들어가 스위트룸 거실에 4명, 침실에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애초 총격이 벌어졌다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경찰은 독극물 중독을 사인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시신의 입에 거품이 있었고, 객실에서 하얀 가루가 묻은 컵도 발견됐다고 전했다.

티띠 생사왕 방콕시 경찰국장은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살해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망한 베트남 투숙객들이 룸서비스로 음식과 음료를 주문했으며, 음식은 그대로 두고 커피와 차 등 음료는 마신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약 24시간 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부 현지 매체는 이들이 청산가리를 먹고 사망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총 7명이 5개 객실을 예약했다며, 사망자 6명 외에 나머지 한 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방콕 도심 한복판 최고급 호텔에서 외국인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이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부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관광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버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